



실내외 정원 · 분화용 털머위 재배 이용기술

Cultivation and Using for Garden and Potted Plant of leopard plant(*Farfugium japonicum*) native to Korea.



송 정 섭

농업연구원, 이학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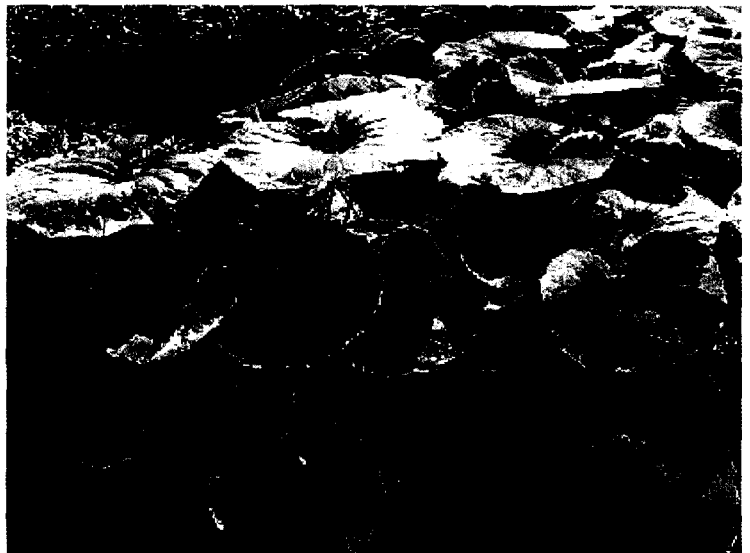
(031-290-6159,

songjs@rda.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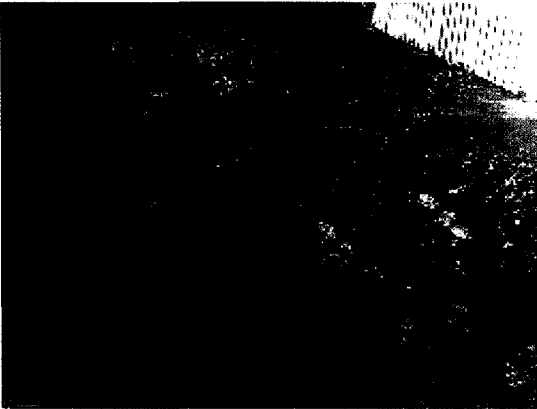
www.wildflower114.com)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화훼과
(National Horticultural Research
Institute, RDA)

‘털머위’ 하면 보통 우리가 나물로 먹는 머위와 비슷한 식물을 연상한다. 하지만 이 둘은 과(국화과)는 같지만 속명이 전혀 다른 식물이다. 털머위는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 아시아 동부지역에 2종이 분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전남, 경남의 해안가나 울릉도 제주도 등 남부지역에 분포한다. 털머위는 상록성 숙근초로서 자생지인 남부지역에서는 전형적인 상록성으로 자라지만 중부지역에서는 겨울철에 지상부가 죽고 이듬해 봄에 새로운 잎이 나온다. 흔히 실내정원용으로 이용되는 것은 무늬종으로 ‘Argenteum’이라는 품종(그림 1-1)이다.



(그림 1-1) 털머위 무늬종(Argenteum)의 실내정원 이용



(그림 1-2) 털머위 개화광경



(그림 1-3) 털머위 만개시 꽃 모양

1. 생리생태 및 이용

털머위는 선택적 상록 다년초로써 남부지역에서는 전형적인 상록성으로 자라지만 중부지역에서는 내한성이 좀 떨어져 월동은 하지만 겨울에 지상부는 죽고 뿌리만 남아 생존하여 이듬해 봄에 다시 잎이 나오며 생육을 재개한다. 중부지역에서 이용할 경우 겨울동안에 어느 정도 보온조치를 해주면 생육이 훨씬 양호하다. 자생지가 그늘 또는 반그늘진 곳으로 내음성은 비교적 강한 편이다. 번식은 종자(호광성 종자)로 하거나 근경(봄에 포기나누기)으로 한다. 털머위는 주로 잎을 관상하는 식물로 실내정원(그림 1-2, 1-3)이나 분화용(그림 2)으로 흔히 쓰인다. 남부지역(특히 제주지역)에서는 도로변 암석 틈이나 경계면에 심어 조경용으로도 많이 이용된다. 겨울동안에도 상록을 유지해 주며 초가을부터 피어나는 노란 꽃도 일품이기 때문이다.

2. 재배기술

털머위의 번식은 종자번식이나 포기나누기로 한다. 묘를 계

획적으로 대량생산할 때는 종자를 파종하여 실생묘를 생산하는 것이 좋으며, 조기에 개화묘를 생산하고 할 때는 포기나누기를 한다.

가. 실생묘 생산

털머위는 가을에 꽃가루가 수분 수정된 다음 바로 추위가 오기 때문에 채종하는 곳의 환경에 따라 종자의 충실도나 결실율이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개화 결실후 어느 정도 생육온도가 유지되는 곳에서 채종하고 채종된 종자는 염수선 등을 통해 충실하게 잘 익은 것들만 골라 파종해야 한다. 발아될 때의 광조건은 암조건보다 명조건



(그림 2) 털머위 분화재배

(표 1) 털머위 종자의 발아조건 ('04, 원예연구소)

처 리 내 용	파종후 경과기간별 발아율 (%)		
	1주	4주	8주
무처리 (암조건)	3.0	47.0	55.0
무처리 (명조건)	13.0	70.0	70.0
저온 30일	86.0	87.0	87.0
지베렐린 50 mg/L	14.0	79.0	79.0

에서 발아가 잘 되는 호광성 종자로 파종후 너무 깊게 복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종자는 약간의 휴면성이 있어 그냥 파종하는 것보다는 30일 정도의 저온처리를 하거나 지베렐린 50mg/L액에 침지한 다음 파종하는 것이 좋다.

균일한 묘를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자나 플러그판에 파종하는 것이 좋다. 파종은 물론 물 관리, 액비시용 등 일련의 육묘기간동안의 관리를 집약적으로 할 수 있고 공간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파종후 본엽이 4-5매가 되면 포트에 이식하여 성묘관리체제로 들어간다.

나. 포기나누기

조기에 개화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포기나누기를 한다. 특히 무늬종은 실생묘 양성시 반엽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 영양번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포기나누기는 이른 봄 뿌리가 충실한 것들을 중심으로 2-3주가 한 포기가 되도록 나눠준다. 좋은 묘를 많이 생산하려면 모주들을 대상

으로 전년도에 퇴비 및 시비 등 비배관리를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다. 일반 재배기술

털머위는 반그늘 또는 어느 정도 햇볕이 드는 곳에서 잘 자란다. 생육적온은 10~25℃로 상당한 저온에서도 견디지만 겨울에 0℃ 이하로 떨어지면 동해를 받게 되므로 이런 지역에서는 짚 등으로 멀칭해 줘야 한다. 물은 충분히 주고 어느 정도 다습하게 관리한다.

라. 병해충 방제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으면 병이 발생한다. 갈색무늬병은 잎에 발생하는데 처음에 잎에 작은 갈색반점으로 나타나지만 병반이 점차 커져 나중엔 원형 또는 부정형의 불규칙한 검은점무늬 형태의 병반을 만든다(그림 3). 내부에 병 포자가 들어 있고 주위로 비산하여 전염한다. 충은 머위 명나방과 진딧물이 있는데, 머위명나방은 유충이 잎 내부로 들어가 갇아먹어 잎을 급격히 시들어 말라죽게 한다. 방제는 피해를 받은 줄기나 집을 보이는 즉시 불에 태운다. 성충이 산란하기 전 또는 어린 유충이 줄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기 전에 해당되는 살충제를 사용한다. 진딧물에 가해를 받으면 머위의 잎이 위축되고 전개되지 않으며 잎 뒷면을 보면 많은 진딧물이 기생하고 있다. 주로 6~7월경에 발생한다. 정식 전에 토양 살충제를 살포하고 유묘기나 수확 1개월 전에 적용 살충제를 살포한다.



(그림 1-3) 갈색무늬병에 걸린 잎